

댐관련 분야 해외사업 현황

‘블루골드’ 물산업으로 세계에 도전하는 K-water



윤병훈
K-water 해외사업본부장

‘블루 골드(Blue Gold)’ 물산업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생소해 보이던 물산업, 물시장이라는 낱말이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선 용어가 아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과 수질오염으로 물이 중요한 자원으로 부각되면서 물산업은 블루골드라 일컬어지며 급격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영국 물 전문 리서치 기관인 GWI (Global Water Intelligence)에 따르면 세계 물시장 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약 5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물시장의 성장속도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며 최근 5년간 평균 4.7%씩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약 700조원, 2020년에는 약 80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처럼 물산업은 산업화 시대부터 인식된 경제발전 및 국민복지를 위한 필수 요소의 수준을 넘어 이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산업, 녹색성장을 담보하는 선진국형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K-water는 지난 1967년에 설립된 이래로 다목적

댐,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등의 설계, 건설 및 운영관리를 통해 우리나라의 물관리 전반을 책임져왔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 물시장 개방화와 세계화 속에서 다국적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K-water의 역량을 검증하는 동시에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내 물산업의 세계 진출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사명을 띠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인 K-water는 정부의 정책 지원은 물론 국내의 경쟁력 있는 민간기업과 협력해 세계 물시장의 사업개발과 수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K-water는 1994년 최초로 중국 산서성 분하강 사업을 시작으로 개발도상국의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위주의 소규모 해외사업을 통하여 기술적 역량의 축적, 해외거점 구축, 국제 협력에 따른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 제고에 힘을 기울여 왔다. 그동안 ODA사업에서 축적된 해외사업 역량을 기반으로 2005년도에 K-water 최초의 기술수출사업인「인도 리킴로 수력발전소 O&M

기술지원사업」을 수주하였으며, 2006년에는 최초의 아프리카 진출 기술수출사업인 「적도기니 몽고모 상수도 경영지원사업」을 수주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어 2007년도에는 우리나라 정부의 차관(EDCF :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을 재원으로 캄보디아 정부에서 발주한 「캄보디아 크랑폰 리강 수자원개발사업」을 수주하는 등 2011년 말 현재 18개국에서 30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13개국에서 13개 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최근에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세계 물시장 개척을 위하여 대규모인 동시에 장기적인 투자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하여, 2009년 이후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사업」, 「중국 강소성 사양현 지방상수도 사업」을 수주하는 성과를 올렸다. 투자사업은 K-water의 강점인 수자원 및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기술과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는 국내 건설사의 시공능력을 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막대한 규모의 국부 창출이 기대된다. K-water가 주도하는 투자사업은 포화상태인 국내 물시장을 넘어 민간부문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어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해외 동반진출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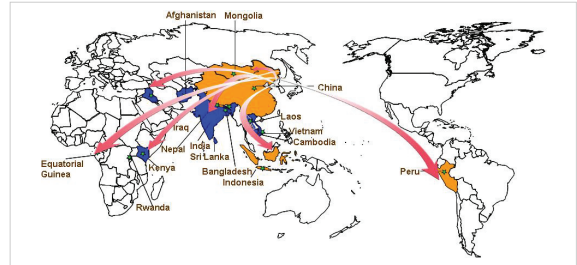


그림 1. K-water 해외사업 진출 현황

세계 여러 나라는 이미 물시장을 향후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자국의 물산업 경쟁력 강화와 세계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단일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서 국가 간의 경쟁 구도를 띠고 있다. 이에 따라 K-water는 2020년까지 세계 5대 물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하고, 2010년 말에는 해외사업본부를 설립하여 해외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선진국과의 치열한 경쟁이 수반되는 세계 물시장에서 K-water는 대한민국의 물산업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해외사업을 통하여 기후변화로 고통 받고 있는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의 생활환경 개선, 청정에너지 생산을 통한 녹색성장 등 범지구적인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 사업 공사현장 전경



그림 3. 중국 강소성 사양현 지방상수도 사업 주주 간 협약 체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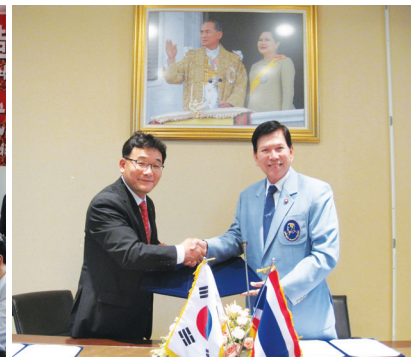


그림 4. 태국 Prem재단 협력사업 협약식